

2022년 제2차 이사회 회의록

□ 회의개요

- 일 시: 2022. 12. 1.(목) 17:00~
- 장 소: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회의실
- 심의안건:
 1. 2023년도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안)
 2. 국가대표 선발규정 일부 개정(안)
 3. 상임심판 운영규정 제정(안)
 4. 심판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5. 사무국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 개회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범주입니다.

금 번 이사회가 본 협회 제11대 집행부 구성 후 코로나19로 인하여 첫 대면 이사회입니다. 사무국 직원들을 오늘 처음 보는 임원분도 계실 거 같아서 사무국직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지희 과장입니다.

강인규 주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사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이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2022년도 제2차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출석확인)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먼저 성원 여부를 확인 하겠습니다.

한윤자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재철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이루리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장순철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혁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양정순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창문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정훈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희중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조무근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임홍철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양종수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문경로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원홍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1. 성원보고 >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재적이사 26명중 14명 참석으로 본 협회 규약 제33조에 의거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2. 개회선언 >

○ 회장 주원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제2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3. 회장인사 >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다음은 회장님께서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 회장 주원홍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또 갑자기 이렇게 추워져서 조금 건강에 유의해야 될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우리 부회장님들, 그리고 이사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

해서 거의 저희가 행사를 못하고 있다가 올 가을에부터 아마 코리아오픈, 부산 오픈, 대구오픈, 각종 국제대회를 한꺼번에 치르느라고 우리 이사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협회 임직원들도 고생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패럴림픽에 단장으로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거기 IPC에서 워드15라는 캠페인을 벌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전 세계에 장애인이 15% 랍니다. 그래서 이 15%의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자는 얘기인데요. 그게 아마. 스포츠를 통해서 장애를 극복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자는 뜻으로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도 앞으로 새로운 휠체어 선수를 발굴하고 또 저변을 확대시켜가지고 많은 장애인들이 테니스를 통해서 장애를 극복하는 그런 사례를 만드는 협회로 거듭나기를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회장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인구를 만들고 또 새로운 선수를 발굴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회는 사실 대면 이사회가 두 번째죠? 지난번에 한 번 한 걸로 기억하는데..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지난번에는 그냥 간단하게..

○ 회장 주원홍

약식이었나?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네. 약식으로 정식이 아니고.. 임원회의입니다.

○ 회장 주원홍

코로나가 많이 줄어들고 앞으로는 저희가 이사회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또 각종 행사를 통해서 자주 뵈면서 서로 친목을 다지고 장애인테니스협회의 발전에 서로 도움을 주고 또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사회 잘 끝나고 아마. 송년회가 기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송년회까지 참석해 주셔서 오래간만에 같이 식사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4. 보고사항 >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다음은 보고사항 제1호 「전차 이사회 초록 보고」가 있겠습니다.

○ 회장 주원홍

회순에 따라 이사회 초록을 사무국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전차 이사회 초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건자료 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차 이사회는 '22년 1월 17일부터 19일 까지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인하여 비대면 서면결의로 개최되었으며, 재적이사 26명 전원 회신하여 주셨습니다.

보고안건으로 「전차 이사회 서면결의 결과 보고」 및 「법제상별위원회 구성 보고」를 보고하였습니다.

심의 안건으로 「2022년도 제1차 이사회 서면 의결」, 「2021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안)」, 「2022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지부 회원 탈퇴 승인(안)」, 「규약」, 「법제상별위원회 운영규정」, 「심판 자격 관리 운영규정」, 「사무국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등 8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회장 주원홍

초록에 잘못 기록되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록에 대한 이의가 없으시면 그대로 접수할까요?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이사들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5. 안건심의 >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다음의 회순에 따라 회장님께서 심의안건 제1호를 상정하시겠습니다.

○ 문경로 부회장

회장님. 안건 심의하기 전데요.. 지금 이게 지도자 선발(안) 심의 및 나머지 안건 2, 3, 4, 5번은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심의입니다. 1번 따로 하고 2, 3, 4, 5번을 묶어서 심의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회장 주원홍

문경로 수석부회장 의견에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이사들 있음)

그럼 심의 안건 1호 그 다음에 2호, 3호, 4호, 5호 까지 같이 하자는 얘기지?
2, 3, 4, 5호 안건을 한꺼번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2, 3, 4, 5호 안건은 제가 보고만 각 안건별로 드리고 마지막에 묶어서 상정하시면 되겠습니다.

1호 안건 상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장님!

○ 회장 주원홍

심의안건 제1호인 「2023년도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안) 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국장은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자료 5페이지입니다.

본 협회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5조(국가대표 지도자 선발방법 및 시기)에 근거하여 '22년 8월 본회 홈페이지에 선발 공고를 하였으며, 월급제 감독에 1명, 월급제 코치에 1명, 수당제 코치에 1명으로 직군별로 1명씩 응시하였습니다.

선발 절차를 설명 드리면 공개채용후 본회 전문체육위원회에서 후보자의 평가 및 결과를 심의·추천하면 이사회에서 선발하고 장애인체육회로 보고하면 이후 장애인체육회에서 확정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전문체육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 및 평가를 심의하여 2023년 국가대표 월급제 감독에 나인철 현 국가대표 감독, 월급제 코치에 박세덕 현 코치, 수당제 코치에 주득환 현 코치를 이사회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추천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부연 설명을 드리면 2021년 이전 2020년까지는 국가대표 지도자들의 보수는 훈련일수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되는 수당제 지도자의 형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월급제 지도자(감독 1명, 코치 1명)으로 운영되기 시작한건 2021년도부터입니다. 그것도 10개월 월급으로 올해까지 운영되어 오다가 2023년부터 1년 12개월 지급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립니다.

○ 회장 주원홍

본 협회 2023년도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정순 이사

감독과 코치는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는 거 예요?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양정순 이사

또 선발해서 또 1년씩 이렇게...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네.

○ 회장 주원홍

사실 인제 이게 요즘 지도자 이쪽에 장애인 휠체어테니스 쪽에 그 지도자가 없어요. 따로 특별히..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그나마 오랜 기간 동안 휠체어테니스 쪽에 와서 봉사하고 이렇게 하다가 코치를 하게 됐는데 다 이제 선수 출신들이고 하는데.. 물론 장애인 선수 출신도 이제 전임지도자 중에 있긴 하지만.. 요즘은 더 일반 비장애인 테니스가 너무 막 이게 붐이 일어나 가지고 사실 이런 데 와서 봉사 할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이 붐에 거의 없습니다. 지금.. 사실 지금 우리 코치들이 나갈까 걱정이예요. 거꾸로.. 근데 그나마 그래도 이제 오랫동안 해오고 정도 들고 그래도 계속해서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이 친구들을 이제 감독이나 코치에 선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문경로 부회장

나인철 감독은 명지대학교 출신이고 대학원 까지 나왔고요.

○ 회장 주원홍

선수 출신

○ 문경로 부회장

박세덕은 계명대학교 나와서.. 선수들을 지도하다가 이쪽으로 왔고요. 그래서 아까 지금 회장님 얘기 하셨지만 그 지역에서도 코치 자리를 많이 제의를 받고 했는데.. 저희 쪽에 와가지고.. 나인철 감독 같은 경우에는 심판 화이트까지 뺐다가.. 그나마 또 여기에 매진하다 보니까 이쪽에 있고 참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코치나 감독이 세계선수권대회나 일반 시합을 나가면 공항에서부터 다 선수들 손발이 되어 줘야 해요. 가방도, 짐도 많고, 비행기 타면 이런 힘든 부분을 보호자 없이 이제 선수들이 6명, 7명 데리고 나가기가 참 힘듭니다.

저희들이 심의를 해봤죠. 심의를 전문체육위원회에서 했지만, 또 막상 3명 뽑으면 3명밖에 등록을 안 합니다. 지금 그런 입장이니깐 여기 이사분들께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여기서 통과가 돼야지만이 사무국에서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 회장 주원홍

봉사정신 없으면 거의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제 지금 우리

감독 코치들도 여기 와서 일을 하는 거지.. 봉급은 머 굉장히 박봉입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 임홍철 부회장

월급이 얼마 정도 인지 알 수 있을까요? 얼마 정도 인지?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지금 국가대표 감독이 이제 이 월급제 된 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
제작년에 10개월로 해서 500, 450 이렇게 지급..

○ 임홍철 부회장

연봉?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월급입니다. 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게 올해까지 10개월로 지급되다 내년부터 12개월로 이렇
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 회장 주원홍

그나마 봉급도 10개월을 줬었는데 12개월로 바뀌고 조금 아마 그 등급제라는
게 있어서 S등급 감독을 코치를 맡게 되면 조금 더 받고 이러는 건 있을 겁니
다. 근데.. 그리고 지금 현재 사실 이게 비장애인 쪽에 실내 테니스장에서 코
치하면 막 7, 800 1천까지 버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요즘 머.. 주니어 선수들
가르키는 코치들 까지도 막 가만두고 그쪽에 가서 일을 한다고 그래서 코치
난 이에요. 코치 구하기 힘들고...

○ 임홍철 부회장

겸직은 금지입니까?

○ 회장 주원홍

기본 원칙적으로는 금지입니다.

○ 문경로 부회장

선수촌에 입촌하면요. 거의 못 나오죠. 주말에나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1년
에 한 6개월은 선수촌에서 살아요.

○ 회장 주원홍

선수촌에서 생활을 많이 하니까...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경기도 이전에 장애인 선수촌이 따로 국가대표 선수촌이 있습니다.

○ 회장 주원홍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본건 에 대해서 이사님들
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이사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의결합니다.

(의사봉 3타)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그러면 심의 안건 2호, 3호, 4호, 5호는 일괄 상정하시는 걸로 아까 동의해 주
셔서.. 그러면 각 안건별로 간단하게 규정이 어떻게 개정이 되는지 보고 드리
겠습니다. 먼저 국가대표 선발 규정입니다. 다음 안건 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
다. 대한장애인체육회 국가대표 훈련 지원 체계 개편 계획 및 지도자 재임용,
선수 선발 등 규정 적용이 용이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하고 현실에 맞게 규정을
개선 보완하고자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건으로 안건 제3호인 상임심판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 건 페이지를 보
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의 공정한 경기 운영과 심판 양성
및 교육을 통한 심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임심판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동안 상임심판 운영규정을 제정하지 못하고 운영하여 왔으나 상임심판 제도
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화하여 분쟁 소지를 사전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상임심판 운영규정을 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정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4
조, 제5조, 제6조는 선발 절차 자격요건 및 임기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 제9조는 결격사유 직무 및 관리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는 제13조는 계약 등 복무 수당 지급 및 복리후생 근거를 명시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15조는 성과 평가 방법 및 소상 근거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심판활동의 제한 및 운영규정의 재개정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 4호의 심판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심의 건에 대해서 개정되는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심판 운영규정 제정에 따라 조항 제정비 및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심판위원회 운영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위원회 기능의 심판 등록 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고 안 제6조, 제7조는 위원회 구성원 확대 및 자격 기준 강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위원회 위원의 장기간 결손 방지를 위한 재선출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2는 위원회의 긴급한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의2는 위원회 준수 의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심판등록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17조2는 심판 등급을 구분하는 내용이며, 안 제17조의 3은 심판 평가에 관한 내용을 조항 이동하였습니다. 안 제25조는 등록 심판의 정보 공개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심판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고 드리고요. 다음은 심의 안건 제5호인 사무국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심의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회 사무국직원 복지 관련 조항 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4조 월 급식비를 월 16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물가 상승에 따라 일부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조 제8항 명절휴가비 조정으로 기존 직원 20만원, 국장 30만원에서 직원 명절휴가비용을 국장과 동일하게 30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규정 일부 개정건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한꺼번에 의견 들으시고...

○ 회장 주원홍
지금 사무국장이 설명 드린 대로 이 건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안건 2, 3, 4, 5호 일괄 상정 하셔야 합니다.

○ 회장 주원홍

심의 안건 2, 3, 4, 5호 안건에 대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회장 주원홍

국가대표 선수 선발 관련해서는 또 개정 내용이 먼저 체육회에서 보내온 내용 그대로지? 등급 관련...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네.네. 지도자 재임용에 관한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지금 자격증 체제로 운영을 국가대표 지도자 자격증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전문스포츠지도사하고 약간 혼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좀 명확화한 부분이 있고요...

○ 박창문 이사

그러면 전문스포츠지도사라는 자격증이 따로 있나요?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그 부분은 이제 지금 비장애인 체육회에서 아마 전문스포츠지도사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 쪽은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 박창문 이사

용어를 개정하는 건가요?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네네. 용어를 개정해서... 이제 저희 장애인 쪽에 맞게 명확하게 이 부분 근거를 명확하게...

○ 박창문 이사

개정안 자체는 이번 장애인스포츠지도사가 아니라... 전문스포츠지도사?.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는 이렇게 지금 신구조문대비표 제2조

7항에 보시면 돼 있는 부분을....

○ 문경로 부회장

전문스포츠지도사가 일반은 2급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지도자 자격 명칭만 바꾼 거거든요.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그리고 국가대표 지도자가 아까 사전 말씀 드렸다시피 월급제 지도자가 12개월로 바뀌면서 1월부터 월급을 지급 할려면 그 선발 절차에 대한 최종 절차가 장애인체육회에서 확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확정요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규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임용에 대해서 그동안은 규정에 대해서 이제 딱히 정확하게 명시된 부분이 없었는데 규정 국가대표선발 규정 제일 끝 부분 쪽에 보시면 이게 재임용하기 전에 평가서 자체를 규정상에 명시를 해서 평가에 따라서 재임용을 진행하게 하기로 이렇게 관련 규정에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집어넣었습니다.

○ 회장 주원홍

아마 이제 지난 패럴림픽, 동계 패럴림픽에서 저희가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과거에 비하면, 그래서 아마 장애인체육회에서도 고심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등급제를 적용을 해서 올림픽이나 패럴림픽에서 메달을 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 예를 들면 테니스 같은 경우에 세계랭킹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선수들은 따로 S등급이라 그래가지고 아마 코치를 개인적으로 붙여서 더 전문적으로 훈련도 시키고 또 투어도 다니고 그러니까 보통 때는 이제 국가대표로 선발되면 여러 명이 같은 투자를 받고 같은 혜택을 받아서 코치 밑에서 같이 투어를 다녔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특별한 선수에게는 더 많은 투자를 전폭적으로 하는 개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들은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도 지금 이렇게 선발을 해냈지만 이제 조금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가대표 4명을 갖다가 한 감독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코치나 감독이 한 사람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성적이 좋은 임호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별도 아마 코치나 감독이 붙어가지고 따로 훈련도 더 강도 있게 하고 합숙하는 기간도 길고 또 외국 대회도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렇게 아마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예정입니다.

○ 문경로 부회장

이게 통과가 된 다 면은 임호원 선수는 삼백육십오일을 선수촌에서 자기 집처럼 지낼 수 있고 코치가 세 명까지 붙어요. 감독, 코치, 보조코치 그 다음에 A 받은 사람은 훈련일수가 180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지금 아까 밑에서 전문체육위원회를 하고 왔지만 그것도 임호원 선수도 저희들이 협회에서 추천해서 점수를 줘야지만 S등급을.. 잘해야 받을 수 있는 선수들이 한두 명에서 세 명 나머지는 B등급이라 훈련 일수가 한 50일 정도... 많이 줄죠. 그 줄면서 저희들이 세계선수권대회를 갈 때 그 돈을 가지고 그 쪽으로 돌려서 같이 갈 수 있는데... 참 애매모호해요. 지금 이게 S등급을... 선수를 이제 프로화 하는 거죠. 진짜 회장님 말씀대로 올림픽 패럴림픽 가서 메달 딸 수 있는 애는 이만큼 쏟아 붙고.. 니들이 니네들이 투자 이만큼 올라오면 우리가 나라 체육회에서 이만큼 해 주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일부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개정안 일부 이거는 장애인체육회에서 내려온 안을 가지고 저희 협회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만들어서 이사님들한테 해서 체육회로 올리는 게 아니라 체육회에서 이렇게 해 하고 이사회한테 승인 받아라 그래야지 결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배님들도 일반 협회 가시면 다 내려오잖아요.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오는 규정안이. 그래서 제가 일괄 상정하자는 게 다 똑같아서 그런 겁니다.

○ 양종수 부회장

제가 잘 몰라서 질문 드리는 건데.. 상임심판 운영규정 개정하는 이유가 분쟁 소지가 좀 있어서 분쟁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상임심판 운영하면서 분쟁 소지들이... 분쟁을 느꼈던 것들이 뭐가 있는지 좀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은.. 저희가 상임심판 운영규정 제정 사유에 분쟁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번에 추진한다는데...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이게 이제 장애인체육회 입장이거든요. 이것도 같은 아까 부회장님이 말씀 드렸다시피 그래서 이제 장애인체육회에서...

○ 문경로 위원장

저희는 상임심판이 한명입니다. 최현정 상임심판.

○ 양종수 부회장

한명.. 아!!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종목별로 지금 한명씩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경험이 많은 저희 최현정 상임심판이 지금 상임심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테니스 경기가 워낙 이제 체어나 테니스 규정에 따라서 잘 운영은 되고 있는데, 다른 일부 종목에서 이제 좀 논란이 좀 많았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장애인체육회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 장애인체육회쪽에서 이제 그런 선발 절차나 자격요건 이런 임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분쟁의 소지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을 좀 더 명시한 거 같습니다.

○ 회장 주원홍

테니스 종목은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지난번에 유도에서 등급을 잘못해서 이제 일부 구속된 직원들도 있으니까, 임원들도 있고 굉장히 문제가 크게 불거졌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명확히 분쟁이라든지 그런 분쟁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다른 종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요.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분쟁을 최소화시켜보겠다는 의지로 장애인체육회에서 한번 이 건을 갖다가 자세히 심의하도록 한 것 같아요.

○ 양종수 부회장

잘 알겠습니다.

○ 양정순 이사

그러면 장애인심판은 상임심판이 최현정 심판 혼자 잭아요. 그러면 장애인심판은 한명만 주게 되어 있는 거 예요?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상임심판은 지금 한명요. 네네.

○ 문경로 부회장

체육회에서 정해서 내려와요.

○ 양정순 이사

왜냐하면 대한테니스협회는 지금 6명인가 7명이거든 상임심판이.. 7~8명 되는 데.. 장애인 심판은 한명이...

○ 박창문 이사

비장애인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대회가 쉽게 얘기해서 김천에도 있을 수 있고 양구에도 있을 수 있고, 영월에도 있을 수 있고.. 상임심판이 나가야 하잖아요 동시 다발적으로.. 그로니까 사실 저희 휠체어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코리아오픈, 부산, 대구 이렇게 일단 세 개만 대회가 다 나뉘져 있으니깐 그거를 상임심판 최현정 심판 한명이 통제를 해서 나머지 이제 전체적인 심판을 배정하는 그게 되야 되기 때문에..

○ 양정순 이사

그러면 그 게임수에 대해서 상임심판이 운영되는 거예요?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한가지 단적으로만 볼 수는 없고요. 그게 이제 대한체육회에서 먼저 상임심판 사업이 꽤 오래 전으로부터 진행이 되어 왔었고 장애인 체육회는 상임심판 제도를 정부에서 문체부에서 받은 지가 지금 4년 차 정도 밖에 안 돼서 아직 지금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가 서른두개 정도의 가맹단체인데 지금 전종목에 상임심판이 배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그렇게 이제 전 종목에 배치 한명씩이라도 배치하려고 지금 이제 추진하는 단계고요. 그렇게 해서 한명씩이라도 다 전부 전종목에 배치가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 박창문 이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종목 중에서도 특히 테니스도 그렇게 대회가 많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그런 대회도 많이 늘어나고 하면은 종모그이 상임심판 인원수도 앞으로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 문경로 부회장

상임심판은 한명이지만 우리가 일반 대한테니스협회 심판을 보시던 분들이 와서도 봤는데 지금은 장애인테니스협회에서 만든 그분들이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하려면 양쪽을 다 따셔야해요.

한 쪽만 보면 이제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장애인테니스협회 협회 룰을 또 따라야 하기 때문에..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상임심판도 지금까지 이제 4년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10개월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상임심판도 내년부터는 이제 12개월로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정착 되는 중입니다.

○ 양종수 부회장

이게 규정을 보니까 상임심판은 비장애인 테니스 시합의 심판으로 활동을 못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이게 대한체육회도 똑같이 대한체육회 상임심판은 장애인체육쪽에 또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양종수 부회장

몇 번 안 됐는데 그거를 다른 단체의 경기에 심판으로 활동 못 한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 회장 주원홍

급여를 받으니까 그래요.

○ 문경로 부회장

그리고 지역에서 아까 국제시합이 3개라고 해서 3개만 뛰는 게 아니라고요. 지역에서 있는 심판강습회 등 다 돌아다녀야 돼요

○ 양종수 부회장

소요가 많다는 거죠? 그래도 그분이... 상임심판 한사람이 하는 일이 많으니까..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심판 규정, 심판 교육, 심판 배정, 대회 심판 배정, 운영 대회 운영도 해야 되고...

○ 문경로 부회장

코리아오픈 때 대한테니스협회 심판이사님께서 체험 하셨어요. 그 분은 심판이 사니까...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심판 까지는 되는데... 상임심판은 이제 서로 양쪽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 회장 주원홍

전담하라는 거지. 전담. 전담. 봉급을 주니 이 장애인테니스협회에 관련된 모든 심판 관련된 거는 전담해서 일을 해달라는 뜻이야. 그 다른데 가서 일을 할 수가 없겠쬘 따로...

○ 양종수 부회장

임기는 1년 단위 입니까? 그분도 1년 단위

○ 양정순 이사

1년 단위가 아니라.. 정년 있지 않아요?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계약은 매년 1년 단위입니다.

○ 양정순 이사

비장애인 쪽은 정년으로 가잖아요.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장애인체육 쪽은 아직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상임심판 제도를 가져왔는데 애로사항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게 문체부나 이쪽 상위 기관에서는 장애인체육 쪽의 상임심판이 아직까지는 필요 없지 않냐라는 시선으로 보고 있어서 .. 대회 개수나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사들 “의견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 회장 주원홍

그러면 심의 안건 2, 3, 4, 5호 안건에 관련돼서 많은 의견들이 있으셨는데,

특별하게 의견 없으시면 동의 요청에 따라 심의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더 넘기셔서요. 6번 기타토의 쪽으로 더 넘기시면 됩니다. 예. 거기 기타토의 밑에... 네 거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 회장 주원홍

이제 준비된 심의 안건은 다 의결되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사회를 마치기 전에 기타토의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로 부회장

내년도 국제시합하고 전국체전 일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내년도 국제 우리 시리즈 대회입니다. 테니스.. 휠체어테니스시리즈대회는 3월 29일부터 부산오픈 시작으로 서울 코리아오픈이 4월 11일부터 시작합니다. 그 중간에 대구오픈이 있고요. 이렇게 3개 대회가 ... 4월 11일 12, 13, 14, 15일 까지 이렇게 3주 연속으로 개최됩니다.

부산이 제일먼저 시작입니다. 3월 29일. 그리고 전국장애인체전은 전라남도. 전라남도고요. 테니스는 순천 팔마테니스장에서 개최됩니다.

아마 11월 첫째 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 김희중 이사

계획이신건가요?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제가 계획은 아니고... 개최 시도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김희중 이사

코로나만 아니면...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네네. 코로나만 아니면..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금 사업으로 이제 종목별 전국 국내대회가 이제 2개정도 개최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공모 저희가 받아서 그래서 공모 심사를 해서 그게 이제 정해지면은 아마 개최 될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10월 말경에 부산하고 대구에서 이렇게 전국대회 전문체육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대회 이렇게 두 개 개최되었습니다.

전국대회 예산은 보통 3천정도 저희가 기금으로 지원 받아서 두 개 대회에 1500씩 이렇게 분할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최하는 시도에서는 저희가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지원받는 기금을 저희가 내려주고 또 그 개최 시도에서는 개최시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지방비를 통하고나 아니면 협회 자부담으로 이렇게 해서 추가해서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회장 주원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원래 봄에 열리던 국제대회 새 개가 서울이 먼저 하고 또 잠깐 쉬었다가 부산, 대구 이렇게 했는데 아마 과거처럼 봄 시즌에 이렇게 계속 연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중간에 국내 대회는 뭐 공모 해가지고 지역을 결정하고 진행하면 될 것 같고...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국내대회는 제가 좀 부연 설명 드리면 예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제 봄은 5월달 정도에 하나 하고, 10월 하반기에 이제 체전 전이나 후 쪽으로 해서 하나 이렇게 개최되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내년에는 코로나만 좀 괜찮으면 그렇게 5월, 10월 이 시기에 하나씩 개최될 예정입니다. 시기적으로

○ 문경로 부회장

신인선수들 훈련이 보니까 118일 정도 했는데.. 전부 순천, 구미 이런 골짜기에다 박아놓고 훈련을 시키니까.. 전문체육위원회 위원들이 보러 갈려고 해도 너무 멀어서.. 이쪽으로 가까운 곳으로 옮겨서.. 내년에는.. 왜냐하면 전문체육 위원회에서 한 번씩 가보려 해도 저 순천까지 갔다 오기도 좀 그렇고..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이제 저도 좀 많이 알아보고 이제 전임지도자도 좀 다방면으로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숙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훈련장소하고 또 우리

식당 이렇게 좀 가까운데 이렇게 좀 있어서 선수들이 편한데 그런 장소를 찾다 보니까 좀 이렇게 수도권에 마땅치가 않더라구요. 그리고 또 이제 촌외훈련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천 선수촌에 이제 신인도 좀 입촌시켜서 훈련을 시켜보려고 담당자랑 만이 협의해도 국가대표 우선이라 선수촌은 자리가 안 나고 좀 그렇습니다.

○ 문경로 부회장

아니. 가서 보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그래도 우리 휠체어 선수들 장애인 선수들 중에 친구들... 좀 젊은 친구들인데 시골 같은 데서 잡아놓고 계속 시키면은 짜증나서 도망 올까봐 그러죠. 저. 순천 팔마가서 거기서 한 40일씩 있다 보면은 지칠 텐데 또 이쪽 주말이라고 집에 왔다가 가기도 힘들고..

○ 회장 주원홍

신인선수들이 어디야? 거주지가 어디인데...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서울, 대구 한 명... 대구 두 명 있고요. 서울이 좀 많고 그렇습니다.

○ 문경로 부회장

이쪽 김포 쪽인데.. 순천에 있으면 노는 날 여기 왔다 갈 수가 없어요. 팔마 같은 데는 또.....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이게 또 코로나 전에는 이천 선수촌에 이제 선수촌 숙소를 이용은 하지 못하고 신인들이 그래서 테니스장 선수촌 내에 테니스장만 이용하고 이천시내 외부 숙소를 그렇게 이용하면서 이제 선수촌을 이용한 적은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 터지면서.. 또 국대선수들은 종합대회나 투어대회를 많이 국제대회를 많이 참가해야 해서 코로나 전염 차단 이런 것 때문에 또 그 부분도 이제 선수촌에서 그런 부분을 자제해 달라고 차단한 부분이 있어서요.

○ 문경로 부회장

코로나가 풀리면 내년에 우리가 신인선수들을 대표팀 훈련하는데 두고 감독 코치들이 이게 보는 게 훨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 뭐 최용궁 전 임지도자를 저기 하는게 아니라 같은 장애인 선수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더라

구요. 지도하는데 보니까 한계가 있고, 선수들 컨트롤 하는 게 한계가 보이니까.. 뭐 이렇게 폼하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제가 저도 뭐 장애인 선수를 지금도 지도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 회장 주원홍

몇 명이나 되는 거야. 신인선수가?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지금 이한중, 김동영, 김의택...세명.. 5명 정도 됩니다.

○ 문경로 부회장

혼자서 5명 커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 박창문 이사

비장애인 코치 감독도 사실 선수 두세 명을 훈련시키고 케어 하려고 하면 사실 힘든데 우리 전임지도자 최용궁 지도자가 다섯명을 커버해야 되는 거는 ...

○ 문경로 부회장

그러니까 트레이너가 트레이너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볼 줍고 심부름하고..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그렇죠. 훈련파트너가 또 휠체어 타고 있으니까..

○ 박창문 이사

휠체어 선수들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에는 어떤 그런 패턴이 있잖아요.

사실 그거는 사실 좀 더 빠르게 사실은 상대방 선수의 손발이 돼 줘야 하는 상황인데 똑같은 위치에서 그거를 훈련을 하려고 한다는 건 사실은 어떤 훈련의 성과 자체를 바라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내년에는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으면 코로나 이전처럼 신인선수들도 이천 선수촌을 만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 하겠습니다.

○ 문경로 부회장

가까이서 해야지. 그럼 이사님들도 오면 밥 좀 사달라고 그러고 가서 해야 되고.. 격려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가기도 멀고 올라오기도 멀고 하니까.. 왜냐면 좀 동기를 해야지 열심히 좀 이렇게 할 텐데 그런 동기가.. 협회에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 박창문 이사

사무국장님께 건의 드리는데.. 전임지도자 부분에 대해서 좀 충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육회 쪽에 말씀을 해 주시는 게....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 박창문 이사

가능성 여부는 머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가 계속 신인선수를 발굴해야.. 사실 저희가 지금 장애인 선수들이 사실 너무 제한돼 있어요. 저희 쪽에 오는 거 자체를 농구나 다른 쪽에는 조금 관심을 좀 가는 쪽이 더 많은데.. 우리 테니스 쪽에는 사실은 선수층이 너무 얇아. 그래서 저희가 자꾸 좀 더 그런 선수들에게 훈련 환경이나 이런 걸 좀 해보려고 하는.. 사실 저희가.. 협회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나서야 되겠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문경로 부회장

힘들고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금방 들어와 봐요 힘들지. 젊은 애들이 힘든 거 하려고하나 돈도 많이 들어가서.. 테니스가 금방 안 늘잖아요. 그렇게 힘은 힘대로 들고 또 장비하고 이런 거 자기들 기구 사는 게.. 지금은 많이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시도에도 많이 지원해 주는데 제 실제로 인천은 장애인체육회 예산이 15억이면, 일반 체육회는 35억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죠. 똑같아요. 이 종목 저희들이 가서 종합 2등, 3등하면 머해요. 맨날 C등급이에요. 왜 신인선수 발굴이 없으니까..

가서 열심히 해서 여기 뭐 나가서 종합하면.. 신인선수가 한 명도 없거든 갖다 놓고 좀 가르치면 힘들어서 가버려요. 그냥 안 아와요. 이 운동 자체가 힘들고, 그거 키워서 그나마 지금 있는 젊은 선수들 그냥 도망 가버리면요..

근데 신인선수도 있고.. 전임지도자들이 힘든 거고 협회도 그렇고 하나 불굴하려면 진짜 힘들어요. 오호원 선수 같이 하나 발굴하려면 뭐 몇십년 만에 하나 나오고... 지금 여자들도 없잖아요.. 저희 이번에 대표팀에 안성숙 선수를 이렇

게 뽑은 이유도 이제 선발이 됐지만 스물다섯 살인 데다가 몸도 유연하고, 팔도 길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맨탈 문제 아까도 밑에서 심리코칭하고 맨탈을 하는 선생님을.. 그 맨탈 하는 사람이 또 이게 가격이 비싸죠.. 상담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참 일반보다 장애인 스포츠에서 하나하나 데리고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장애인체육회 심리상담 담당하는 선생님이 있는 게 아니라 개를 계속 붙여 가지고 이렇게 맨탈을 본인이 그걸 가서 해야 되는데...돈이 많이 들고...

○ 회장 주원홍

이게 테니스는 처음에 시작해서 배울 때 도 힘들고 또 왜 만큼 잘하지 않고는 올림픽이나 뭐 이런데 국제대회 나가서 성적 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테니스 선수하고 있는 박주연 선수가.. 개보고 계속 지금 컬링에서 컬링으로 좀 보내달라고 컬링하기 좋은 조건이니까 컬링은 예를 들면 그 혼복이라고 그러나 더블 머 그런 게 있는데 그 종목에서는 한 이삼년만 하면은 금메달 딸 수 있다는 거야 이게 그 정도 조건이면..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믹스더블..

○ 회장 주원홍

믹스더블인가..

○ 사회_이범주 사무국장

남녀 이렇게 합니다.

○ 회장 주원홍

그래서 회장이 자꾸 나한테 주연이 한 테 얘기해달라고.. 내가 주연이 한테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근데.. 선수는 인제 지금 머 전성기 지났으니까 지금 다른 종목으로 가서 또 금메달 따면 또 좋고 하니까 그러는데 그만큼 테니스가 힘들어요. 그리고 호원이 같은 경우도 참 어릴 때 우리가 어떻게 운이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본인이 좋아서 그렇게까지 왔지만..

일본 같은 데는 워낙 지금 신고라는 선수도 있고 선수층이 두꺼운 데다가 잘하고 많이 노출되니까 이 어린 장애를 입은 어린 선수들이 코칭하겠다고 많이 와요. 굉장히 많이 오더라구요. 저변이 머 우리랑은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는 여건도 그렇고... 우리 협회가 그런 일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참 종목의 특성이 뭐 여러분들도 비장애인들 중에 테니스 해보셨지만 테니스가 수준에 올라간다는 게 참 힘든 거 같아요.

○ 회장 주원홍

자. 그러면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오늘 여러 가지 안건 심의 또 좋은 얘기들 많이 해 주셨습니다. 또 할 얘기가 있으면 식사하시면서 정담을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2022년도 제2차 이사회 폐회를 선언합니다.